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610.60 (+61.39)		859.49 (+5.2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91 (+0.010)		1427.00 (+27.00)

사천피 길목에 美·中 갈등 ‘암초’… 자산시장에 먹구름

〈코스피 지수 4000〉

트럼프, 내달 中 100% 추가관세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시행
뉴욕증시·S&P 500 등 끌어내려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팔아야 할까요?’ 3600선을 가뽀한 넘어선 코스피가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도 랠리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과 치솟는 환율(원화까지 하락), 미국 경제지표 등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미·중 갈등 암초 만난 코스피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3% 오른 3610.60에 장을 마쳤다. 장 중 한때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974조6464억 원까지 불어났다. 4000선 정복도 그야말로 초읽기다. 코스피 랠리를 이끈 건 9월 이후 12조6126억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이다. 개인이 쏟아낸 물량(15조7014억원 순매도)을 대부분 받아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악재가



환율 ‘고공행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강화 위협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날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대

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획된 조치”라면서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했다.

미·중 갈등 확산 여파는 뉴욕증시를 침몰시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0%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2.71%, 3.56%급락했다.

◆고환율·美관세 전쟁 변수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가 세계증시와 코스피를 강타할까.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가 전 세계 통상 질서와 금융시장을 흔드는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조선·반도체 중심 영업익 전망 72조 상장사 3분기 호조

코스피·코스닥 270여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7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내수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조선, 방산, 원자력 업종들이 대규모 수주 성과를 내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12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함께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상장사(코스피+코스닥) 273곳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컨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71조96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62조1859억원)보다 15.72% 늘었다.

상장사 273곳 전망치 분석 10곳 중 7.4곳 영업익 늘어

적자기록 기업 12곳에 그쳐
조선업 ‘슈퍼사이클’ 상승세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7.4곳(203개사)의 영업이익이 늘었다. 〈관련기사 13면〉 적자를 기록한 곳은 12곳에 그쳤다. 지난해 27개사였다. 전년 동기 대비 LG 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19개 기업이 흑자전환했고, 두산퓨얼셀을 비롯한 8개 기업은 적자를 지속했다. 다만 삼성 SDI, 카카오게임즈 등은 올해 들어 적자전환했다.

조선업종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150%, 순이익은 418% 급증했다. 국내 조선 기업들은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대표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인도 기준 수주잔고는 총 1372억5800만달러(190조9121억원)로 집계됐다. 약 2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영업이익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총 273개 기업 영업이익의 28.65%를 차지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0조801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7조300억원 보다 53.65%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9조1834억원에서 올해 3분기 9조816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m-커버스토리

은퇴 이후 20년 생활에 8억 필요… ‘가난한 노후’ 연습

〈2인가구 기준〉

‘장수 리스크’ 본격화

기대수명 25년만에 17.7년 늘어
국민 대다수 노후준비 부족하는데
연금 140만원… 보장제도 미흡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20년이 넘는 노후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준비 부족하다. 그런데도 노후 보장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경제 성장률 정체와 사회 구조 변화로 부양에 대한 자녀세대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은퇴 이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을 88.5세(남성 86.3세·여성 90.7세)로 집계했다. 보험개발원은 매 3~5년마다 보험가입자의 질병·사망률을 분석한 경험생명표를 발표한다. 지난 1989년 발표한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1회 경험생명표는 기대 수명을 70.8세(남성 65.8세·여성 75.7세)로 전망했는데, 기대 수명은 25년 만에 17.7년 늘었다. 〈관련기사 3면〉

기대수명이 늘면서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우려도 부상했다. 연금 소득과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자산만으로 30년 가깝게 생활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2인 가구 기준)는 월 336만원이다.

부부가 20년을 생활하기 위해 약 8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의료비를 비롯해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노후 비용은 더 커진다.

노후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원을 넘어가는 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노후 보장 제도를 통한 노후 지원은 불충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급해도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약 140만

으로, 적정 노후 생활수준을 생활비에 약 200만원 가량 미치지 못한다.

자녀 세대의 부양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해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란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해당 항목이 신설된 2002년의 71.7%와 비교해 53.5%p나 급감했다. 경제성장률 정체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양에 대한 의무도 재인식된 영향이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도 우려할 부분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다. 법적 정년보다 4년 빨랐고,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5세보다는 9년 빨랐다. 실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48세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은퇴 이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 불과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구조 하루 앞두고 사망…“건지도 못했다”
▲李대통령,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위한 총력” 지시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北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관련 동향 예의주시 중”
▲與, ‘정청래 자기정치’ 논란에 “당정대 이견 없이 잘 조율 중”

▲송언석 “시민 죽음으로 몬 민중기 특검…‘폭력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한동훈 “계엄 명령 불복한 체포조장, 조용히 씹고 싶다”